

Weekly Brief
R&I trends in **Europe**

KERC R&I News

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

2024.03.06.

Content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집행위, 전략적연구혁신의제를 위한 EU 기후·보건 컨퍼런스 개최(3.1)
- ② EU, 첨단소재 파트너십에 5억 유로 투자 계획(2.29)
- ③ 유럽 교육 장관, 유럽 고등교육 학생 이동성 확대 논의(3.1)
- ④ 영국-프랑스, Horizon 가입에 따라 연구 및 AI 연계 심화(2.29)
- ⑤ 유럽연구위원회(ERC), 과제 제안서 평가 방법 전격 개선(2.29)
- ⑥ 집행위원장, "유럽, 국방 기술에 긴급 투자해야"(2.29)
- ⑦ EU, 민간 기술인 양자 기술 보호 강화 움직임(2.28)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2023-2024 유럽의 과학기술 혁신' 발간(2.28)
- ② 집행위, 산학 공동 창작 및 지식 가치화 참여에 관한 실천 강령 발표(3.5)
- ③ 집행위, 유럽연합 수소 기술 연구혁신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24.02)
- ④ 유럽연구위원회(ERC), 연구와 민주주의에 관한 보고서 발간(3.1)
- ⑤ 집행위 DG RTD, 유럽 과학 출판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24.01)
- ⑥ 집행위 DG RTD, 2050 기후중립 달성 R&I에 관한 보고서 발표(3.4)
- ⑦ EIC Accelerator, 42개 딥테크 스타트업에 2억 8,500만 유로(2.28)
- ⑧ EIC Transition,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27개 프로젝트 선정(3.5)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오디오에 감정적 요소를 삽입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환자 치료
- ② 러시아와 영국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집행위, 전략적연구혁신의제를 위한 EU 기후·보건 컨퍼런스 개최(3.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와 보건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연구혁신의제(SRIA) 준비단계에 착수
 - '24년 2월 19일~20일 양일간 개최된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에 대한 연구 관점'](#) 컨퍼런스에는 500여 명의 기후변화와 보건 관련 연구원, 의사 결정자 및 자금제공자가 참여, 총 4회의 본회의와 12회의 부회의를 가짐
 - ※ 온라인까지 합쳐 총 1,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
 - 동 행사를 통해 총 80명의 연사와 50명의 포스터 발표자가 브뤼셀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해당 분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기존에 연구와 자금이 부족했던 과제, 우선순위 및 요구사항에 대해 성찰
- 토론의 주요 메시지는 기후와 공중보건 조치는 글로벌한 초점을 갖춘 대담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포용적인 유럽 연구혁신의제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다루고자 하는 추세에 맞춰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의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적절하고 의미있는 기후행동을 옹호
 - 연사들은 더 많은 학제간 연구를 요구하며, 기후 및 보건 커뮤니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
 - 행사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요 과제로는 연구 결과의 느린 정책 반영 속도, 남반구 연구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데이터 생성 및 가용성의 격차 등이 있었음
 - 더불어 이들은 정보의 깊이와 포괄성 부족에 따라 보건에 유익한 기후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촉진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
 -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와 보건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연구혁신의제를 위한 핵심 단계가 되었으며, 이는 가능한 많은 글로벌 기후 및 보건 주체가 함께 수행해야 할 것임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audinateh/aiih-conference-research-policy-makers-and-funders-guarantee-prepare-to-lead-2024-03-01>>

2 EU, 첨단소재 파트너십에 5억 유로 투자 계획(2.29)

- 집행위원회는 첨단소재 분야에서 유럽의 입지 향상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5억 유로 민간 파트너십 설립을 추진
 - EU는 '25년~27년 기간 동안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들의 첨단소재 배치를 확대 및 가속하기 위해 파트너십에 2억 5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은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적 우위와 안정된 공급에 있다”고 말함
 - 동 계획은 태양전지판의 에너지 전환을 강화하는 금속 나노입자와 지속 가능 에너지 저장소를 위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공학소재와 관련됨
 - 첨단소재는 청정에너지기술, 반도체, 제약의 혁신을 보장하고 우주와 안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물질을 대체하여 EU의 제3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
 - 집행위는 해당 분야의 연구혁신 수요를 파악하고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
- 동 계획은 연구혁신 생태계의 조화, 자금의 증가 및 첨단소재 개발 가속화 등 여러 도전과제를 강조
 - 계획에 따르면 EU 및 국제적, 지역적 첨단소재 연구혁신 우선순위가 유럽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민간 투자가 증가하여야 함
 - 집행위는 공동연구전략 마련을 위해 회원국과 연구 및 산업 이해관계자가 함께 기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 이 협의체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과 함께 에너지, 모빌리티, 건설 및 전자공학 분야의 첨단소재 연구 우선순위와 국제 파트너십을 논의할 예정
 - 또한, 집행위는 AI를 사용하여 연구혁신가의 첨단소재 디자인, 개발, 테스트를 돕는 디지털 인프라 ‘Materials Commons’를 개발하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유럽디지털인프라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인 등 동 계획은 혁신 및 제조 능력의 향상에도 중점을 둠

- 자본 투자와 자금 확보도 증가될 계획으로, 이는 민관 파트너십 Innovative Materials for EU를 포함하며, 추가적인 국가원조가 유럽공동이익중요 프로젝트(IPCEI)에 승인될 수 있고, 유럽혁신위원회(EIC)와 혁신펀드 (Innovation Fund) 등 다른 자금원도 동원될 수 있음
- 또 다른 우선 과제 중 하나인 첨단소재의 산업적 활용의 가속화를 위해 EU는 공공 조달 및 표준화가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커뮤니티와 함께 첨단소재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공고를 개시할 계획

○ 첨단소재 연구혁신 촉구

- SolarPower Europe 무역협회의 연구혁신 관리자 Garabetian은 동 계획이 태양광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응한다고 말하며, “우리는 2~3년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출시되고 주류가 되는 것을 목격한다. 태양광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혁신에 능숙해야 한다. 소재도 꽤 중요하다”라고 덧붙임
- 유럽은 태양광 관련 낮은 기술성숙도 연구에 뛰어나지만 혁신, 산업정책, 디리스팅 투자에 미숙하여 중국의 수입에 상당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새 계획에 대해 Garabetian은 “이러한 접근방식은 매우 환영이다”라고 전함
- 이번 정책은 '22년 2월 산업계 이해관계자가 집행위원회에 첨단소재 연구혁신 전략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Materials 2030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름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partnerships/eu-unveils-plans-eu500m-partnership-advanced-materials>>

③ 유럽 교육 장관, 유럽 고등교육 학생 이동성 확대 논의(3.1)

- 벨기에 EU 이사회 의장국이 브뤼셀에서 개최한 교육 장관 비공식 회의 둘째 날에는 유럽 고등교육의 이동성과 투명성 개선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룸
- 유럽평의회 교육부장 Qiriazi는 연설에서 유럽 전역에 통합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2024 프로그램에 포함된 몇 가지 주요 계획을 강조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난 9월 스트라스부르 교육부 장관들이 채택한 Learners First 전략의 일부로,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더욱 역동적이고 통합적이며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먼저, 유럽 교육 분야는 유럽고등교육단일공간(EHEA) 내에서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둠
 - 이 계획은 새로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EU 회원국 전체의 인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여 학생의 이동성을 촉진하고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럽 관측소의 창설이 발표
 - 이 새로운 기관은 졸업장, 비자, 인증 기관과 같은 고등교육 분야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정보 교환 및 연구 촉진을 위한 중앙 허브 역할을 할 계획
 - 이러한 조치는 점점 늘어나는 가짜 학위 산업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기관의 투명성, 신뢰 및 무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평의회는 난민을 위한 유럽자격여권(EQPR)을 통해 난민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이들의 통합을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
 - EQPR은 22개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인정한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여 난민 학생과 전문가의 이동성과 수용을 촉진
- 마지막으로, 유럽학생권리헌장 개발의 맥락에서 이동성을 학생의 기본 권리로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됨
 - 유럽학생연맹(ESU)과 공동으로 출범한 이 계획은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형평성과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출처 : <https://www.ceirt.eu/web/higher-education-and-research/-/eu-education-ministers-discuss-gate-students-mobility-in-european-higher-education>>

4 영국-프랑스, Horizon 가입에 따라 연구 및 AI 연계 심화(2.29)

- 영국과 프랑스는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펀딩과 글로벌 AI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등의 신규 조치를 발표
 -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리테유는 영국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도넬런과 런던에서 만나 영국-프랑스 연구 및 AI 관계 강화를 논의
 - Horizon Europe과 같은 연구 자금을 위한 더 많은 영국-프랑스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80만 파운드 규모의 공동 자금 발표
 - 영국-프랑스 AI 파트너십은 올해 말 프랑스가 주최할 AI 안전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할 계획을 바탕으로 구축
- 양국은 이번 첫 번째 프랑스-영국 과학기술혁신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AI, 양자 등 신흥 기술 우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2년마다 회의를 가질 예정
 - 공동위원회는 양국 연구 분야의 주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R&D 팀워크를 위한 공유되고 유망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 공동위원회는 수소, AI, 우주 및 연구 보안과 같은 주요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것부터 자금 지원을 통한 공동 작업 및 아이디어 교환 및 모범 사례 교환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국제적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
- 이번 영국-프랑스 협약은 Horizon Europe을 통한 협력 강화, AI 안전 외에도 우주, 수소, 연구 보안에 대한 공동 작업을 다룸
 - 이는 영국이 최근에 체결한 일련의 양자간 국제 과학 협약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이에는 한국, 이스라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파트너십은 물론, 영국-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등 협력 관계도 포함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d-france-to-deepen-research-and-ai-links-following-horizon-association>>

5 유럽연구위원회(ERC), 과제 제안서 평가 방법 전격 개선(2.29)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모든 단계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포괄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제안서를 올해 도입
 - ERC 회장 마리아 랩틴은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연구 평가 시스템이 연구자와 그가 수행하는 연구의 역량, 성과, 영향 등을 평가하기에 다소 편협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ERC 과학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
 - '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 평가 방식이 너무 편협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저널 출판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균형잡힌 성과에 중점을 두도록 연구 영향력 평가 개선에 대한 범유럽논의를 개시
 - EU 연구 장관들의 지지와 함께 ERC를 포함한 500여개 이상의 자금 지원 기관, 연구원, 대학 등은 연구평가개혁연합(CoARA)라는 이름으로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에 착수
 - CoARA의 권고에 따라 ERC는 연구게시물과 출판 논문 목록을 4페이지 상당의 서술식 이력서로 대체, 연구자 개인보다는 과제 제안서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
- ERC 과제 제안서는 올해부터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없애고 과제 제안서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 '24년부터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력 경로, 연구 성과, 동료로부터의 인정 사례, 경력 공백, 연구계에 기여한 실적 등이 담긴 4페이지 상당의 일종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ERC는 연간 워크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던 연구책임자의 필수 조건을 삭제하고, 기존 1~5 등급으로 지원자와 과제 제안서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과제 제안서만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개선된 시스템은 합산점이 같은 경우 '지원자가 높은 평가를 받고 과제 계획서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가 '지원자가 낮은 평가를 받고 과제 계획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보다 채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
 - 랩틴 회장은 앞으로 과제 제안서만 점수로 평가하여 전문가 평가 이전의 순위를 매길 예정이라고 전함

- 이러한 개선은 덜 알려진 기관 소속의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우수성만은 기준으로 모든 제안서를 평가한다는 ERC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인생의 주요 사건이나 자녀를 갖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 등으로 경력 경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연구자들이 모두 같은 경로를 가진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의 명성 등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임
 - 브뤼셀자유대학교 인지과학교수이자 ERC 수혜자 협회 회장인 클리레만스는 연구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안서의 우수성을 우선시하는 이번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힘
 - 비엔나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ERC 수혜자 협회 이사인 수시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명성을 강조하는 평가 시스템에서 불리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평가자들이 변화된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ERC가 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
- 랩틴 회장은 ERC 평가 절차 개편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하는 등 향후 CoARA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ERC 평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
 - ERC는 연구자의 경력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된 보조금을 지원, 연구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EU 회원국 및 HE 준회원국에서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24년에는 Advanced Grant(5월 29일~8월 29일), Synergy Grant(7월 12일~11월8일), Proof of Concept Grant(9월 17일) 등 공고가 진행될 예정
 - ※ Advanced Grant에는 럽섬 펀딩 방식이 적용될 예정
 - 대표적 기초연구 지원기관인 ERC의 이러한 개선은 다른 유럽 연구 자금 지원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research-council/european-research-council-has-changed-how-it-evaluates-applicants>>

6 집행위원장, “유럽, 국방 기술에 긴급 투자해야” [2.29]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월 28일 수요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EU 군·산·학 단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
 - 집행위원장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국방강화에 대한 토론에 앞서 유럽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기관에서 산업,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유럽 방위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이번 언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가자지구 전쟁과 ‘공격적인 경제 경쟁과 왜곡의 지속적인 증가’를 포괄
- 집행위원장은 산업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차기 행정부에 국방 담당 집행위원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힘
 - 집행위원장은 두 번째 임기에 대한 도전이 성공할 경우 국방이 6월 유럽 선거 이후 차기 임무의 중심 초점이 될 것임을 알림
 - 집행위원장은 “전쟁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회원국의 군대를 재건하고, 보충하고, 현대화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다”며 유럽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함
-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미래 분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에 중점을 둘 예정
 - “유럽은 차세대 전투 승리 작전 능력을 개발하고 제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국방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 지난주 집행위원장은 EU가 키이우에 국방혁신사무소를 설립하여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사용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집행위원회는 또한 민간 및 군사 응용 분야 이중용도 기술을 Horizon Europe에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시
 - ‘22년 2월 집행위는 민간 연구와 국방 연구 사이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허용하는 계획이 포함된 국방안보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한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옴

○ 차주에는 공동방위조달 지원 방안 등 사상 최초의 유럽방산전략을 제시할 예정

- 집행위원장은 EU가 기업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오프테이크 계약이나 사전 구매 계약을 촉진할 것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공통 관심사인 유럽 국방 프로젝트를 식별할 것이라고 밝힘
-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은 방위 분야 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집행위원장은 "공공 및 민간 대출 기관이 방위 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임
- 유럽투자은행(EIB) 총재는 EU 재무장관들과의 회담 후 유럽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기여하기 위해 EIB가 더 나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으며,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EIB의 제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
- 유럽의원들은 유럽의 국방 정책을 조정할 전담 집행위원을 둔다는 아이디어와 EIB의 전략을 환영

○ EU 회원국들은 국방 투자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지지

- 벨기에 디지털화 담당 장관 미셸은 토론에 앞서 유럽의원들에게 "현재 지정학적 맥락에서 안보와 국방은 유럽인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유럽 정상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한 뒤 "전시 경제를 향해 더욱 강력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힘
- EU 주재 그리스 대표인 브라일라스는 "우리는 연구혁신 및 자원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어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
-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민사 연구와 국방 연구 사이에 매우 강력한 구분이 있으며, 많은 대학이 소위 민사 조항을 두고 군사 관련 연구 작업을 금지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상황이 바뀌고 있음

- 독일 총리 솔츠에게 제출된 독일의 연구·혁신·기술 시스템에 대한 연례 평가는 이달 초 독일 과학부 장관의 발언을 반영하여 이 부문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
- 한편, 산업협회 ASD(항공우주안보방위)는 EU가 혁신을 무시하지 말 것을 촉구
 - 협회는 최근에 발표한 '24년부터 '29년까지의 차기 EU 임무에 대한 정책 선언문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유럽방위기금(EDF)을 위한 상당한 예산 증가'를 요구
 - ASD는 최근 대화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해야 하는 즉각적인 필요성에 관한 것임을 언급하며, "단기적 필요에 대한 결정이 장기적인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핵심 분야에서 유럽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적에 대한 작전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국방 연구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협회는 EU가 "지속가능성 고려사항 및 기준이 방산 회사를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치적 및 규제 조치"를 통해 방산 회사가 민간 및 공공 투자 및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 지난주 EU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회의를 앞두고 체코 정부는 ESG 보고에서 국방 부문의 처리를 명확히 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하는 문서를 회람
- ※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은 투자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방위산업은 종종 제외되고 있음
- 학계는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길 경우 새로운 추가 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다른 연구가 중단되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주장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국방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별 대학에 달려있어야 한다고 주장
 - LERU 사무총장은 "증대된 국방 연구에 새로운 자금이 지원되고, Horizon Europe의 민간 연구에서 자금을 빼앗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기존에 Horizon Europe이 민간 연구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럽과학기술대학협회인 CESAER는 분명한 이중 용도 잠재력을 지닌 인공지능, 양자 등의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현재 이중용도 과학기술에 대한 노력을 유럽 수준에서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연구집중대학길드는 "갈등, 의사결정, 외교, 국방 정책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간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지식 생산이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이라도 응집력과 신뢰가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사회과학, 예술 및 인문학 연구 역시 사회 회복탄력성과 방어의 핵심이라고 주장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defence-fund/europe-must-urgently-invest-defence-technologies-says-ursula-von-der>>

7 EU, 민감 기술인 양자 기술 보호 강화 움직임(2.28)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양자컴퓨팅*이 안보 및 방위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EU가 역내 양자 기술 벨류 체인 보호 강화에 나섰다

- * EU 집행위는 지난 10월 양자컴퓨팅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통계 4대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대안 마련이 예고되어 있음
- EU는 양자 기술이 일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동 민감 기술 개발에 있어 역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칩 생산에서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양자 기술 개발 전략을 위해 최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양자컴퓨팅 관련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

- 또한, 기술의 외부유출 제한을 위해 비 EU 국가는 양자컴퓨팅 관련 연구 자급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가국으로 엄격한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만 접근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 미국이나 중국이 EU 개별국가를 접촉하는 상황 및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EU 차원의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략

○ EU 지원으로 진행되는 양자 기술 프로젝트에서 일부 국가 배제는 EU의 예방적 차원이라는 평가

- 양자 기술은 기존 컴퓨터 대비 훨씬 빠른 계산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는, 양자 기술이 신생 기술만큼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는 단계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 양자 기술, 반도체 칩에 이어 미국의 타깃 될 수도

- 미국은 과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에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 바, 향후 양자 기술이 미국의 새로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
- 유럽외교위원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현재 EU는 반도체 분야에서 범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

<출처: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uid=24382&mod=document&pageid=1>>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주한유럽연합대표부, ‘2023-2024 유럽의 과학기술 혁신’ 발간(2.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동 간행물은 27개 EU 회원국 및 유럽연합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니셔티브 및 한국과의 협력 활동 등을 소개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왜 유럽과 협력해야 하는가?	p.6~9
2. 호라이즌 유럽	
1) 호라이즌 유럽이란?	p.10~77
2)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가이드	
3. EURAXESS: 유럽연합 연구지원서비스	p.78~85
4. 유럽연합 회원국의 과학, 기술 및 혁신 (27개국)	p.86~256

<출처 : https://www.ec.europa.eu/dilegations/south-korea/2023-2024-%EC%9C%A0%EB%9F%BD%EC%9D%B8-%EA%B8%EC%ED%95%99%EA%B8%BD%EC%88%A0%ED%98%81%EC%88%A0_ko3=179>

2 집행위, 산학 공동 창작 및 지식 가치화 시민 참여에 관한 실천 강령 발표(3.5)

- 두 실천 강령 모두 연구혁신가에게 경제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가치화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산학 실천 강령은 지식 가치화를 위한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
 - 시민 참여 실천 강령은 연구 결과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연구 기관과 사회 행위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
- ※ 두 실천 강령은 집행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형태로 발간됨

<출처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new-codes-practice-industry-academia-co-creation-and-citizen-engagement-knowledge-valorisation-2024-03-05_en>

3 집행위, 유럽연합 수소 기술 연구혁신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24.02)

- 집행위가 발간한 '수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하는 수소 연구개발은 대부분 유럽 북서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짐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수소 기술 개발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여 대부분이 소위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s)이라고 불리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07년부터 집행위는 약 800개 프로젝트에 29억 유로 이상을 지원
 - 자금의 상당 부분이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특히 항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수소 가치 사슬의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도 자금이 조달됨
 - 프로젝트 주요 참가자들은 유럽 북서부에 위치해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수소 연구의 핵심 주체임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수소 밸리가 꽃피우고 있으며, 17개 수소 밸리가 R&I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출처 :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b82ce4e0-d215-11ee-b9d9-01aa75cd71a1/language-en>>

4 유럽연구위원회(ERC), 연구와 민주주의에 관한 보고서 발간(3.1)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투표, 디지털 캠페인, 허위 정보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ERC 연구가 어떻게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
 - 2024년 특별 선거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ERC 지원 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는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과 최근 민주주의 방어 패키지에 설명된 목표에 따라 EU 정책을 형성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또 다른 관련 간행물은 Horizon Europe 2022 '민주주의 재구성' 공고에 따라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제공

5 집행위 DG RTD, 유럽 과학 출판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24.01)

- 동 연구는 학술 출판물의 관행과 비용에 관한 주요 이슈를 보여줌
 - 유럽 과학 출판의 발전, 다양성 및 비용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학술 출판의 관행 및 비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정책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됨
 - 분석은 EU 이사회 결론에 따라 오픈액세스에 대한 집행위의 정책을 지원하고, 출판사와의 불투명한 계약 합의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독립 전문가에게 의뢰됨
 - 동 보고서는 이러한 계약과 출판사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출판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회원국, 기관 및 도서관 측에서 요구되는 특정 조치를 권장

<출처 :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23fafd0e-d646-11ee-b9d9-01aa75ed71a1>>

6 집행위 DG RTD, 2050 기후중립 달성 R&I에 관한 보고서 발표(3.4)

-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DG RTD)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위한 연구혁신: 과제, 기회 및 향후 경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순 제로 배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R&I 의제에 필요한 설계, 원칙 및 솔루션 환경에 관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보고서는 문헌 검토, 기후 중립 시나리오 분석, 예측 워크숍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결합한 방법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향후 10~20년 동안 성숙도, 상업화 및 채택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광범위한

고위험 R&I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보고서는 개별 기술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목표 지향적인 R&I 개입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기후 완화 접근 방식의 체계적인 상호 작용이 R&I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더 잘 통합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을 옹호
- 또한, 보고서는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범용 기술(예: AI 합성 생물학, 블록체인)의 기회, 장벽 및 위험 중 일부를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제거 솔루션과 관련하여 향후 10년 동안 상당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녹색 전환에서 나타나는 국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 EU가 주요 제3국과의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옹호

<출처: <https://ecad.innovation.eu/wp-content/uploads/2023/09/2023-09-20-ecad-innovation-report-2023-09-20.pdf>>

7 EIC Accelerator, 42개 딥테크 스타트업에 2억 8,500만 유로(2.28)

-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지난 11월 마감된 EIC Accelerator 공고에 따라 선정된 42개 기업을 발표
 - 이번 공모에는 총 1,083개의 제안서가 지원되었으며, 42개 기업은 숙련된 투자자 및 기업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인터뷰를 통해 매우 경쟁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
 - 선정된 42개 기업은 총 2억 8,5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선택된 기업의 62%는 보조금과 지분 투자가 결합된 혼합 금융 옵션을 선택
 - 지분투자는 EIC Accelerator 기업 전용 투자펀드인 EIC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전체 투자액을 EIC 투자액의 평균 3배 이상으로 늘릴 예정
 - EIC Accelerator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최대 250만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EIC 펀드를 통해 500만~1,500만 유로 이상의 지분투자를 제공
 - 선정된 회사는 3개 참여확대국을 포함하여 15개 국가에 지리적으로 분산
 - 선정된 혁신 기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Alias Robotics (스페인) - 차세대 로봇 전용 AI 기반 보안 플랫폼
- IQM 핀란드 (핀란드) - 오류 수정 및 완화 기능을 갖춘 산업용 양자 컴퓨터
- Powerful Medical (슬로바키아) - 보다 정확한 심장마비 진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 Smart Farm Robotix (불가리아) - 단단한 토양, 언덕이 많은 지형 및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정밀 접촉 및 비접촉식 제초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 인식 시를 갖춘 완전 자율형 태양열 구동 경량 제초 로봇

<출처: <https://eice.europa.eu/news/eic-accelerator-eu285-million-funding-deep-tech-start-ups-most-competitive-funding-round-2024-02-28-en>>

8 EIC Transition,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27개 프로젝트 선정(3.5)

-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지난 9월 마감된 EIC Transition 공모에 따라 선정된 27개 프로젝트를 발표
 - 선정된 참가자는 16개 EU 회원국 및 HE 준회원국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57개의 적격 제안서 중에서 최종 선정됨
 - 각 프로젝트는 최대 25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게 됨
 - EIC Transition 자금은 EIC Pathfinder, FET(미래신흥기술) 및 유럽연구위원회(ERC) 개념증명(PoC)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한 결과에 대한 후속 자금을 제공
 - Open Funding은 미리 정의된 주제 우선순위 없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Transition Challenge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 정의된 주제 영역 내 프로젝트를 지원
 - 선정된 27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오픈 펀딩 12개
- 마이크로-나노 바이오 장치 챌린지 10개
- 환경 지능 챌린지 1개
- 칩 규모의 광 주파수 빔 챌린지 4개

※ 선정된 프로젝트 목록은 [동 링크\(클릭\)](#) 및 아래 출처 참조

<출처: <https://eice.europa.eu/news/european-innovation-council-transition-results-27-projects-selected-take-next-technologies-lab-2024-03-05-en>>

3. EU 주요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오디오에 감정적 요소를 삽입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환자 치료

- CREAM 프로젝트는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리 조작 도구를 사용하여 뇌에 대한 통찰력을 얻음
 - 이 연구는 이미 언어 문제 진단부터 뇌 수술 환자 평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임상 응용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음
 - 과학에서는 음악이 음식이나 섹스와 동일한 뇌 경로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음악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악의 영향을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둠
 -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음악을 연주한 다음 이것이 어떻게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기록했다. 음악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가, 아니면 생리학을 변화시키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다."(프로젝트 코디네이터, CNRS 신경과학자 Aucouturier)
- 치료약 연구자들이 활성 분자가 생리적 경로를 표적으로 삼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처럼 CREAM 프로젝트는 오디오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소리의 감정 기록을 변경한 다음 청취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함
 - 다학제적 프로젝트인 CREAM은 음성 및 음악 기술 방법을 빌려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에서 600명이 넘는 참가자와 작업
 - 감정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신경과학적 합의는 이미 존재하나, CREAM은 감정 상태가 미묘한 소리의 '특징들'로 표시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
- 프로젝트의 핵심 이정표는 SMILE 소프트웨어 특허권 취득에 있음
 - 이 도구는 화자가 웃을 때 목소리에 발생하는 음색 변화를 음향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

- “웃는 소리를 시뮬레이션하면 어떤 목소리에도 실시간으로 적용하여 더 행복하게 들리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Aucouturier)
- 청취자에 대한 이러한 사운드 시뮬레이션의 영향은 뇌, 심장 및 안면 근육의 변화를 각각 기록하기 위해 두피, 가슴 및 얼굴에 장착된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됨
- “청취자들이 우리의 SMILE 알고리즘으로 조작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화자가 이전보다 더 친근하다고 말하면서 또한, 스스로도 먼저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Aucouturier)
- 스피아웃 회사인 AltaVoce는 현재 특히 전화 기반 고객 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향상 도구로 SMILE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하고 있음
- 악기가 목소리만큼 감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과거의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템포와 볼륨과 같은 기본 매개변수만 변경되었음
 - 웃음소리, 목소리의 떨림, 목소리의 ‘거친 소리’와 같은 소리 특징들을 음악 샘플에 적용함으로써 테스트 참가자들은 조작이 음성 샘플에 적용될 때와 유사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
 - 이러한 사운드 변형 기술은 범죄자와 악의적인 행위자가 더욱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가짜 오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등 명백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킴
 - 따라서 Aucouturier는 이러한 위험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무료 오픈 소스 도구는 현재 프랑스의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DAVID는 녹음된 음성의 감정을 변경할 수 있는 무료 실시간 음성 변환 도구이며, ANGUS는 임의의 음성 신호에 대한 각성과 거친 신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
 - CLEESE는 주어진 사운드에 대해 무작위 또는 결정론적 피치, 시간 척도, 필터링 및 게인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Python 도구 상자임

- 응용 분야에는 뇌졸중 생존자의 언어(실어증) 문제 진단, 혼수상태 환자의 의식 검사, 선천적 시각 장애 환자의 사회적 인지(특히 '듣는' 감정을 모방하는 능력) 탐구, 환자가 수술을 위해 마취되기 전 음성 불안 마커 식별 등이 있음
 -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응급 의학 분류, 뇌 신경교종 수술의 영향 평가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
 - “우리는 광범위한 신경 및 정신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소리를 사용하여 건강한 뇌의 정서적 특성을 제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현재 프랑스의 혼합 연구 FEMTO-ST 연구소를 기반으로 하는 Aucouturier는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Aucouturier는 EU가 지원하는 Lullabyte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유럽의 10개 실험실과 협력하여 수면 중에 두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음
 - “우리가 배운 내용을 사용하여 수면의 질, 기억 강화 및 꿈의 기억을 향상하는 창의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심지어 꿈의 내용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CREAM 프로젝트

- 기간 : 2014.10.01.~2019.09.30.
- 예산 : 약 150만 유로 (EU 지원 약 150만 유로)
- 총괄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프랑스)

<출처 >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how-software-embeds-emotional-cues-audio-helps-treat-patients>

2 러시아와 영국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 **SingleMother 프로젝트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영국과 러시아 간의 흥미로운 대조 결과를 밝힘**
 - 많은 국가에서 미혼모는 정규화 과정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음
 - 미혼모는 더 이상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겪지 않으며, 그들의 자녀는 비전형적인 가족 구조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나 이러한 정규화의 이유와 특징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어, 영어권 문학에서 이러한 정규화는 아동 그림책과 청소년 문학을 포함한 소설의 다양성에 반영됨
 - SingleMother 프로젝트는 영국과 러시아의 대조적인 인식과 그러한 인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옴
- **이 프로젝트는 소련 시대와 현대 러시아에서 반복적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 등 유사점을 발견**
 - 한편으로 당국은 미혼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음
 - 반면에, 사회적 기대에 대한 익숙한 이야기들을 반영하면서 전통적인 가치와 가족에 대한 눈에 띄는 보수적 태세전환이 있음
 - 이러한 이중성은 미혼모가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줌
- **SingleMother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내용과 구매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mazon을 살펴봄**
 -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 프로젝트 수석 연구원 Sergeev는 미혼모에 관한 문헌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서 컬렉션을 선별
 - 이 컬렉션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논픽션 도서 32권, 청소년 독자 대상 도서 48권, 아동 그림책 62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작품은 미혼모를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등장시킴
 - “이 텍스트를 탐구하면서 나는 미혼모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변별력있는 패턴, 반복적인 상징, 요소, 단어와 이미지의 미묘한 사용에 집중했다.

어린이 그림책에 특히 중점을 두었는데, 여기서 나의 연구는 텍스트 영역을 넘어 미혼모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면밀히 조사했다.”(Sergeev)

○ 프로젝트는 소련-러시아 역사의 관점에서 미혼모를 고려함으로써 사회가 여성에 대해 어떻게 양면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지 보여줌

- “이러한 입장이나 태도는 미혼모에게 허용되는 행동 패턴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 패턴을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이나 문화적 코드를 통해 지어질 수 있다. 여자가 자신의 행복을 잊고, 다른 남자들의 관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건강은 소홀히 하면서, 오로지 자녀 양육에 전념할 때 비로소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Sergeev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주장
- “자기 자녀들을 위한 그림책과 자신을 위한 문학작품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미혼모의 자발적인 행동은 설득력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 프로젝트는 또한 정책입안자들에게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미혼모의 복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함

- 기존 법률이 어느정도 미혼모를 보호할 수는 있으나,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점은 주로 이동에 집중되어 미혼모 자신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어머니 중심’의 접근 방식을 옹호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결정자들이 미혼모의 경험을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미혼모를 위하여 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SingleMother 프로젝트

- 기간 : 2021.10.01.~2023.09.30.
- 예산 : 약 213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The Chancellor Masters and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영국)

<출처 :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49253-society-s-perception-of-single-mothers-in-russia-and-the-united-kingdom>>